

V. Self Evaluation (50pts)(별지) - 파일로 제출.

참여 확인과 본인의 Project (Term paper) Proposal 에 대해 아래를 채우시오.

1. 본인이 그간 Q&A, 동료학생, “행렬론” 강좌등에 기여한 내용을 간단히 서술하세요!

(1) Q&A 참여 개인 total 약 (119) 회 (스스로 QnA 에서 검색하여 확인 가능)

2. 자신이 한 학기 동안 PBL-BL English MT 강좌에서 학습한 내용을 나름대로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세요. (분량-자유, 서술방법-독창성 보장)

MT 강좌를 1학기 수강한 여러 학우들이 지금 이 부분을 쓸 때 대부분이 아마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스스로 느낀 점을 쓸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학기 동안 교수님께서 따로 올려주신 참고자료에 대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강의가 시작하자마자 1가지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근대 고등수학 도입과 교과과정 연구'라는 학회지를 읽고 감상문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는 순간 너무 오랜만에 쓰는 글이라서 그런지 더욱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한 지식은 제가 거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었고 수학과지만 생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참고자료를 통하여 수학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었고 과거의 한국의 수학자들과 수학교육과정에 대해 더욱 생각해보았습니다. 참고자료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atrix.skku.ac.kr/2009-Album/KSHM-2009-KoreanTertiaryMath/KSHM-2009-KoreanTertiaryMath.html>

두 번째로 올라온 내용은 3월 14일 파이데이(π -Day)입니다. 파이데이의 유래와 현재 한국의 과학과학관에서 열릴 행사에 대하여 소개해주셨습니다. 이 외 여러 가지 수학 관련 기사들과 우리가 이 MT수업에 임해야 하는 자세를 느끼게 해주는 어록들을 많이 올려서 학업에 대해 진취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기 첫 주에 하은혜 양께서 소개해 준 외국의 수학박물관에 대한 글을 보고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밑에 바로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수학박물관을 소개하는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꼭 이번 방학 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기념적인 장소이기도 하며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http://matrix.skku.ac.kr/2009-Album/2009-MathCulture.html>

그리고 방제형 군이 올려준 Ivy League Campus Tour의 내용과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사진들을 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고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현재 내 자리에서 더욱 더 높이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 그에 대해 지금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신발 끈을 매는 단계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점프를 위해 하늘을 올려보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학우의 경험을 보았을 때, 매우 부러웠고 같은 경험에 대한 갈망이 넘쳤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소개해준 자바툴과 Wolframalpha(www.wolframalpha.com)와 같은 홈

페이지를 통하여 우리의 학습은 더욱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공감할 것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가 평소에 하던 공부 방법에 정말 큰 하나가 추가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루한 학업에 흥미를 더해주는 관련 동영상을 강의에 추가하여 이것을 배우는데 더욱 더 흥미를 갖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 '페르마의 마지막 탱고'나 영화 '굿윌헌팅', 'Prof who Loved a Equation'은 우리에게 수학에 대한 인상을 더욱 심겨주었습니다.

이번 학기 MT수업을 들으면서 MT교재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은 교수님께서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참고자료와 더불어 여러 학생들이 올려준 교과서의 수학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수강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인상을 강하게 남겨준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수강생 모두가 수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불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3. (1) 본인이 PBL-BL English MT 강좌를 통하여 배운 수학적 내용 중 특히 기억나는 내용을 서술하시오

페르마의 탱고라는 뮤지컬을 보면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관심을 갖고 그에 관한 서적이거나 방송자료를 찾아서 보았습니다.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 동료와 같이 MT 1-9장을 cover 하면서 배우거나 느낀 점은?

솔직히 중간고사까지는 원서로 공부하는 것이 낯설고 온라인을 통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팀별로 나누어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 다른 조와도 토론을 하는 기회가 찾아졌을 때, 이때까지 하던 공부와는 좀 다른 느낌의 공부였습니다. 마치 나만 알면 땡이라는 것에서만 끝났던 공부가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고쳐주는 시간을 통해 수학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갖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선형대수학을 배운지 3년이 지났고, 공부를 한동안 쉰 탓에 책에 내용이 있지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꽤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동료들과 의견을 주고받을 때 그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학기를 마치면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같이 토론과 교정의 과정을 거쳐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기 평 가 (Midterm) 1

과 목 명	MT 행 렬 론	조	2 조				
이 름	이 경 호	전 공	수학과				
평가항목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약간 아니 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출석 및 시간을 지켰다.							○
2. QnA 및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3. 토의내용에 적합한 질문과 응답을 하였다.							○
4. 동료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 답, 정보를 제공하였다.							○
5. 다른 동료의 의견을 존중하였다.							○
6. 문제 관련 토론의 조직·운영 및 의견수렴과정에 긍정적 으로 기여하였다.						○	
7. 같은 조의 조원들이 나와 같이 활동하고 싶어 한다.						○	
<p>강좌 관련 개선의견</p> <p>자신의 QnA를 통해 올린 문제가 Revise와 Finalize가 안되고 방치되는 것을 방지해, 조별 활동을 일찍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단점은 이 안에서만 의사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물도 정해서 균형적인 온라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p>							

자 기 평 가 (Midterm) II

과 목 명	MT 행렬론	조	2조	
이 름	이경호	날 짜	6/7	
학습문제	MT PBL 자기주도적 수업, 자기 성찰노트			
자기 점검표				
활동(Activity)		Excellent	Good	Fair
1. 나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사실들을 생성하는데 기여하였다.			○	
2. 나는 학습과 관련된 학습과제(Learning issue:더 알아야 할 사실들)들을 제안하였다.			○	
3. 나는 개인학습을 할 때 다양한 학습 자료를 사용하였다.		○		
4. 나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제공에 기여하였다.		○		
5. 나는 문제 제기와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토의의 촉진과 이해를 위한 적절한 질문을 많이 제공하였다.		○		
6. 나는 우리 조가 원활한 조 활동을 하는데 기여하였다.		○		
<p>[성찰노트] ※ 다음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활동내용을 기록하세요.</p> <p>저는 팀과제를 포함하여 Final-Exam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다른 조원들과 같이 토론과 교정을 통하여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조원들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해주어 조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QnA를 통하여 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p> <p>그리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잘 풀리지 않거나 다른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싶을 때에는 1차적으로 조원들에게 물어보았고, 2차적으로 QnA를 통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해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교수님께 가져가서 해결하였습니다.</p> <p>교수님의 무비클립 '페르마의 마지막 탕고'를 통하여 페르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 자료를 보며 그에 맞는 동영상을 찾게 되어 수업을 같이 듣는 학우와 같이 공유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통하여 학우들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p> <p>또한 행렬론에 대해 개인학습을 할 때, 교수님께서 제공한 자료들을 포함하여 도서관에 비치된 다른 행렬론 자료를 찾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되었던 자료는 선형대수학 책이었는데, 군복무하기 전에 공부하였던 책이어서 매우 낯설어서 다시 한 번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p>				